

제 5 차 3 대 혁 명 선 구 자 대 회 개 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대회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인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건인불발의 대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가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대회에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앞선가고있는 3대혁명기술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도, 시, 군 당위원회 책임일꾼들, 성, 중앙기관 당책임일꾼들, 무력기관 정치일꾼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과 관계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자》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한에서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시기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소집한 당중앙의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간개조의 선구자, 집단적혁신의 주인공이 되어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 크게 공헌한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3대혁명기술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조선로동당의 3대혁명로선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과 3대혁명의 거대한 의의와 불멸의 생명력에 대하여 밝히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의 3대혁명화이자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며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리상사회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엄으로 으며 온 사회를 3대혁명화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구체적인 실천방도들을 천명하시었다.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과 3대혁명 선구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구절구절 맥박치는 서한은 대회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었다.

대회보고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하였다.

보고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은 조선로동당의



그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을 조강력한 무기로 사회주의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이 당의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지지 못하고있는 일련의 결함들과 그 원인에 대하여서도 분석되었다.

보고자는 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현존하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돌파하는 묘술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을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해당 단위발전의 실제적인 추진력으로 되게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열의 속에 대회는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령도

위인이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오늘 공화국이 우리 국가에 일주의 시대를 전면적으로 펼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설수 있는것은 철세위인께서 안아오신 세상을 놀래

3 월 전 원 회 의

지금으로부터 8년전 공화국에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은 세계가 주목한 이 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로선이 제시되었다.

당시 적대세력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협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고있었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전야의 엄중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자 적대세력들은 두가지 건설을 병진시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헐뜯었다. 당시 세계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지키는것만도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이 이번에 제시된 새로운 과업과 연 관철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의문의 시선을 보내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다. 하지만 오늘도 지구상 도처에서는 무장충돌과 전쟁의 화염이 계속

우는 눈부신 기적적승리들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 땅에서는 이룩된 기적적승리들, 그 가운데는 전쟁적력력을 강화한 공화국의 병진로선이 안아온 경이적인 패승도 있다.

속 치솟고있고 수많은 인민들이 재난을 당하고있다. 평화는 누구나 바라는것이지만 힘이 없이는 절대로 지켜질수 없다. 이것이 력사와 오늘의 팽혹한 현실이 보여주는 참다운 진리이다.

바로 이 력사의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시었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철의 담력과 의지로 이렇듯 세상을 놀래우는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서 이번에 제시된 새로운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으로부터 항구적으로 들어주고 나아가 할 전략적로선이라고, 공화국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라고 하시면서 병진로선관철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새로운 병진로선이 제시됨으로써 공화국은 전쟁적력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이면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되었다.

최강의 자위적국방력을 억척으로 다지시여

지혜와 묘술도 가르쳐주시었다.

이렇듯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있어 국방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3.18혁명》의 패승이 마련되고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미사일장착용수소탄 시험의 완성성공에 이어 《11월대사변》을 맞이하여 세계에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 올라설수 있었다.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은 《11월대사변》이 이룩된 력사의 그날 만리창공에 새겨지던 장쾌한 비행운을 잊지 못하고있다.

주제106(2017)년 11월 29일 공화국에서는 대지를 박차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이 날아올랐다. 이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하였으며 전략무기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환경에서의 믿음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단번성공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선언하시었다.

진정 공화국에서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불과 4년만에 국가핵무력완성이라는 력사적대업이 이룩될수 있는것은 현재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운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생결단의 헌신과 로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언론, 전문가들은 《자주성이 강한 조선만이 이룩할수 있는 대업》, 《조선에 더는 선불질을 하는 나라가 없을것이다》, 《조선의 지위를 다시금 새겨보아야 한다》고 평하였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완성됨으로써 공화국인민들은 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0월에 열려 련일 참관자들로 성황을 이룬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보여준것처럼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로 보아도 크지 않은 조선이 세인이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위력한 무기들을 자체의 힘으로 척척 다 만들어내고있는것은 21세기의 특기할 사변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중의 자랑이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백두령장 김정은장군을 높이 모시여 주체조선의 군력은 날이 더욱 비상이 강화될것이며 공화국인민들은 강위력한 자위의 억척력을 억척해 들어워 이 땅우에 기어 사회주의강국을 제힘으로 안아오야말것이다.



화선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라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끄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국방력강화의 길을 앞장에서 걸으신 그이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를 공화국인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새무기시험사적이 진행될 때마다 위험천만한 사격현장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린 공화국인민들이다.

하지만 그이께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위해 바치신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다는 알지 못하고있다.

주제106(2017)년 2월의 어느날에는 먼동이 터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신심을 안고 발사되기로 진술하라고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시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력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었고 또 언제가는 위험천만한 현장에까지 나오시여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시험출시시험과정을 보여주시고 성공이 너무도 기쁘시여 국방과학자를 업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렇게 새무기개발을 위해 그이께서는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시험사격장으로, 새무기조립장으로 나가시여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성공으로의

